



이 줄 언제 사라질까 광주·전남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연일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후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동구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도로교통공단 69개 구 대상 조사...남·서·북·광산구 '중간 이하'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지수가 광주 시 동구를 제외하고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는 지난 2020년 교통안전지수 83.16을 기록 전국 69개 구(區) 가운데 1위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가장 안전한 자치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지수란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심각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토대로 인구와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를 뜻한다.

보다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에 대한 교통안전도가 64위를 기록해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서구는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이 포함된 운전자 영역에 대한 교통안전도가 낮은 가운데 특히 과속 사고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광산구는 남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및 이륜차 사고'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북구는 '운전자' 영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지역 자치구는 '교통안전 개선도'에서도 저

조한 평가를 받았다. 서·남·북·광산구는 각각 -1.25%, -4.91%, -4.15%, -2.24%의 음(-)의 개선율을 보이며 지난 2019년보다 오히려 교통안전이 불안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동구는 개선율 1.64%를 기록했다. 광주서구의회 김태진 진보당 의원은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광주 자치구 중 4개 구의 교통안전 지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며 "특히 과속, 자전거·이륜차, 어린이 보호안전 등 영역이 심각했다. 각 영역에 대한 자치구의 집중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중국 국비장학생 모집

4월1일~8일 접수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내 및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해 중국정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장학생을 선발해 추천한다. 2022년 중국 국비장학생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이며, 6월에 대상자를 선발해 9월에 파견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독립의 원칙 지킬 것"

윤준 신임 광주고법원장

"국민들 우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재판이 재판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 당부합니다.

윤준(연수원 16기·사진)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21일 광주고등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요사이 국민들 사이에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원인이 재판의 독립이 흔들리고 있어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또 "내내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모든 분야에서 민간분야 보다 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대민업무에서 이용자의 시선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을 꾸준히 점검·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결맞는 창의적인 업무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의 탈 관료화를 실천하겠다"면서 "법관의 관료화는 법관이 수호하여야 할 재판독립의 원칙을 근저에서 무력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이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대상이 법관일 경우에는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신임 윤준 광주고법원장은 해남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고법원장의 부친은 지난 1993년부터 99년까지 제 12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윤관(고시 10회) 변호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감 출마 선언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21일 오전 광주서석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광주시민과 함께 더 큰 포용교육으로 더 좋은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학생맞춤형 다양성 교육, AI·디지털·4차산업혁명 기술을 교육과 연계하는 미래교육, 느린 아이와 생각이 다른 아이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감염병·먹거리·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학교 ▲실력이 탄탄한 광주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모든 학생의 진로진학 책임제 ▲5·18교육 세계화를 통한 민주인권평화교육 확산 ▲K-컬처를 주도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추진 ▲배움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지구를 살리는 기후환경교육 강화 ▲생활 SOC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의 더 좋은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육학 전공(학·석·박사) 출신으로 교육학 교수, 광주교대 제6대 총장, 대통령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구 현 교육감과 경쟁해 2.17% 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미크론 확산 방지 대민행정 '잠시 멈춤'

광주 북구 27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고있는 코로나19에 방지를 내렸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필요불가결한 대민행정을 제외하고는 '잠시 멈춤'을 선포, 공직사회 방역을 강화한다.

북구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공직부문 거리두기 ▲사적부문 거리두기 ▲방역원사 관리 등 3개 분야의 특별방역수칙을 마련, 전직원에게 적용했다. 불필요한 출장 자제, 각종 대면회의·대면보고 최소화, 외부 초청 행사 연기 또는 개최 시 인원을 최소화한다.

청사 방역 횡수를 기존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

고 주기적 실내 환기, 공용물품 소독 등 부서별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점심식사 시 인원을 최소화하고 직원 간 만남 자제,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권고 등 강도 높은 사적부문 거리두기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직원 밀접접촉, 증상발현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환원검사와 PCR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택치료 후 복귀자도 3일 동안 특별관리하는 등 환원검사 관리도 힘쓴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오미크론이 공직사회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잠시 멈춤'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 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데이투어: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